



2015년 대한유방외과연구회 창립 심포지엄 개최

지난 9월 13일 중앙대학교병원 동교홀에서 2015년 대한유방외과연구회 창립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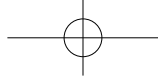
이날 130여명의 유방외과 전문의들과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에디터 이은정 사진 노현우

대한유방외과연구회는 유방외과분야의 새로운 발전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여 유방외과 전문의들이 모여서 만든 연구회로 올해 첫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대한유방외과연구회의 양정현 회장은 “우리나라 외과의사들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수 많은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다. 특히 유방외과 의사들은 유방암학회를 통해 유방외과의 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이젠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방암학회의 전문적인 활동과 함께 암 이외의 유방외과분야의 발전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이와같은 대한유방외과연구회가 창설됨과 동시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라고 인사말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도한 엠디병원의 이상달 원장은 “유방외과 의사들이 그동안 유방암 뿐만 아니라 양성유방질환과 유방암 검진은 물론 유방재



“ 유방암 이외에 유방외과분야의 발전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심포지엄 프로그램에는 이은숙 교수님을 좌장으로 두고 '유방재건술의 보험급여와 현황, 해외유방재건술 환자의 유치와 전망, 유방보형물에 의한 유방재건술의 사례' 등이 발표되었다.



건이나 성형 수술에 이르기까지 외과의 수술 술기에 가장 전문적인 집단으로 성장해야 할 과제들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최근 유방재건술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될수록 수많은 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의 사회적 재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밝히며,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과거 유방외과술기연구회가 존재하였으나, 최근 활동이 저조하고 유방외과를 전공하는 외과의사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유방재건을 포함하여 유방에 관한 술기를 아우르는 대한유방외과연구회 심포지엄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많은 외과의사들이 각 분야에서 쌓아온 실력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유방외과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책임있는 의료인으로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 프로그램에는 이은숙 교수님을 좌장으로 두고 ‘유방재

건술의 보험급여와 현황, 해외유방재건술 환자의 유치와 전망, 유방보형물에 의한 유방재건술의 사례’ 등이 발표되었으며, 양정현 교수님의 좌장으로 ‘함몰유두 교정술, 부유방, 여성형유방’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정파종 원장님을 좌장으로 ‘미세침습세포검사나 중심침생검 등의 연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존슨앤존슨 (멘토), 앨러간(내트렐) 등 유방보형물 제조사를 비롯하여 한미약품, 데비코어 메디칼, 삼성메디슨, 코비디엔, 스트라이커 내시경업체 등 관련 기업이 참가하여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